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음 5월 22일) 제231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향로산 휴양림, 동부권 휴양 '중추'

전북 대도약 향한  
시·군 방문·무주

송하진 도지사, "산림서비스 동부권 발전 좋은 사례 발전 '힐링 1번지' 자리매김 선도" 안성농공단지 입주업체 찾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최선"



지난 21일 전북대도약을 향한 시군방문으로 무주를 찾은 송하진 도지사가 황인홍 군수와 함께 산림생태·휴양·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향로산 자연휴양림에서 토달관광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21일 무주군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안성농공단지를 찾아 무주군 지역과 더불어 두 장소가 갖는 경쟁력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무주읍 소재 향로산 자연휴양림을 먼저 방문한 송하진 지사는 모노레일을 타고 산림생태와 휴양·문화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시설들을 둘러보았으며,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장, 황의탁 도의원을 비롯한 공무원들, 그리고 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산림자원의 역할과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작년 1월 개장 이래 2만여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은 향로산 자연휴양림은 동부권 산림휴양시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도에서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로산 자연휴양림을 산림서비스와 동부권 발전의 좋은 사례로 발전시켜 전북이 '대한민국 힐링 1번지'로 자리매김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농공단지(12개 업체, 15개 블록)에서는 입주업체 대표들을 만나 "1993년 준공 이래 지금껏 무주군 산업경제 부흥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노후기반시설정비는 입주업체의 생산성 제고와 근로복지 향상의 전제 조건으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만큼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향로산 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목공예 관련업체, 무주군 산림조합, 무주군관광협의회 대표가 참석해 산림복지지구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무주군 관광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안성농공단지에서는 입주업체 대표들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전라북도의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신규농공단지 지정승인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북의 도약은

무주가 이끈다는 각오로 다방면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라며 "무주와 전북발전을 위해 오늘 지사님과 나는 비전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송하진 지사의 무주방문은 '시·군과 함께 전북 대 도약시대를 연다'라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무주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을 공유하는 직접 소통의 시간이 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진성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 전북, 기술로 미래를 열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첨단소재 기반 허브 조성  
오늘 덕진구 만성동 일원서 '전북테크비즈센터' 기공식

전북연구개발특구를 농생명·첨단소재 기반의 세계일류 연구개발(R&D)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전북테크비즈센터'가 혁신도시에 들어선다.

전북도는 21일 오전 11시에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5번지 일원에서 송하진 도지사, 송성환 도의장,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등을 비롯 출연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는 '전북테크비즈센터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공식은 전북테크비즈센터의 무재해·무사고를 기원하고, 산·학·연간 교류·소통은 물론 연구개발의 구심체가 될 거점공간으로서 혁신성장의 힘찬 도약을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

전북테크비즈센터는 총 398억원(국비 195억, 특별교부세 15억, 도비 188억)이 투입되어 부지 1만3200㎡에 지하1층, 지상10층, 연면적 1만 5457㎡ 규모로 건설되며,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부를 비롯해 기업 입주공간(39개실), 창업보육공간(36개실) 등 입주시설과 다목적 강당, 중·소회의실, 교육실 등 지원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건립 부지는 전주·완주·정읍 등 전북연구개발특구 3개 사업지구의 중심에 위치하여 각 사업지구에 대한 지원이 용이하고, 대덕·광주 등 타 지역과 접근성 등 전북 발전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춘천 수변공원 연계 및 잔

디마당 설치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황방산 자연경관 조망이 가능한 설계로 입주기업에게는 친환경 휴식공간 제공과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테크비즈센터는 저층부(1~2층)에는 다양한 수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대·중·소 규모의 회의실, 혁신도시 등 인근에 다수의 정부 및 지자체 출연연구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창업보육공간, 지역주민과 입주기업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구성되며, 중층부(3~5층)는 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및 도내 기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육성플랫폼을 가동하기 위하여, 전북특구본부와 전북초중경제센터가 입주해 기술사업화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촉진, R&D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물 중심에는(6~10층)는 연구소 및 기업, 기업지원기관 등의 입주공간으로 배치하여, 수요에 맞춰 가변형 입주공간을 제공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지원시설을 확보하여 입주기업(기업)의 편의시설 및 업무효율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전북테크비즈센터는 2021년 3월까지 완공하여, 산·학·연 교류 및 네트워킹, 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수행하는 사업화 전진기지로 전북특구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김진성 기자

## '생태교통수단' 자전거로 전주천변길 따라 '쌩쌩'

시, 시민자전거 행진 펼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민 자전거 행진'이 전주천변길을 따라 펼쳐졌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시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해 알리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민자전거 행진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자전거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오전 10시 전주시청 노송광장을 출발해 기린대로와 전주천을 따라 이어진 바람쐬는 길을 지나 원색마을에서 되돌아오는 약 11km 코스를 함께 달리며 시원한 여름 정취를 즐겼다.

특히, 이날 행진에는 가족단위 시민과 친구들과 함께 나온 학생, 자전거 동호회 회원, 외국인 등 다양했으며,

참석자들은 전주 도심의 물길을 따라 행진하며 전주천의 풍경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는 타이어 공기압 체크와 브레이크 점검 등 자전거 정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수리센터도 운영됐다.

또한, 시민들의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시민 자전거보험에 대

한 홍보와 공영자전거로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펼쳐졌다.

전주시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친환경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고 안전한 자전거타기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 마음으로 열린 시민자전거 행진에 많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자전거 행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오는 9월과 10월에도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 전북도, 소상공인 현장공감 행보

이원택 정무부지사, 중화산동서 현장공감 간담회

전북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21일,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중화산동에 위치한 소상공인 운영매장 '오가다 커피숍'을 찾아 소상공인들과 '현장공감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2주간 지난 13일 전북청년회의소, 20일 부안·고창·정읍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소통에 이어 3차례의

공감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경영부담으로 꼽히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제로페이'를 직접 이용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해 향후 소상공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한바탕 전주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